

2007. 04. 30.

보도자료

이 자료는 2007년 05월 2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자료생산부서: KDI 경제정보센터 여론분석팀 tel. 02-958-4653

KDI 대외협력팀 tel. 02-958-4030 fax. 02-960-0652

한·미 FTA 관련 경제전문가 의견조사

1. 조사 개요

조사 및 분석 대상

: KDI가 실시한 '한·미 FTA 관련 경제전문가 의견조사' 1, 2차 조사에 모두 응답한 253명(교수: 90명, 연구원: 41명, 금융인: 30명, 기업인: 36명, 펀드매니저·회계사 등 56명)

※ 이번 조사는 한·미 FTA 최종 타결 결과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평가를 파악함. 이와 동시에 협상 진행 중(4차 협상 직후)의 시점에서의 협상 성과 및 협상력 등에 대한 평가가 협상이 타결된 이후 시점에서는 어떻게 변했는지 동일 응답자를 대상으로 직접 비교한다는 의미도 있음. (동일집단 시계열조사)

조사기간

- 1차 조사: 2006. 11. 13 ~ 11. 20(4차 협상 직후)
- 2차 조사: 2007. 4. 18 ~ 4. 23(협상타결 후)

조사방법 : e-mail

2. 조사 결과 요지

- 경제전문가 65.6%, 한·미 FTA 타결 결과에 만족 의견 나타내
- 1차 조사시(4차 협상 직후) '보통' 및 '불만'이라고 답했던 응답자들의 63.6%가 최종 타결 이후 조사(2차)에서는 '만족'으로 돌아서
- 협상타결 이후 정부 협상력에 대한 만족도 역시 1차에 비해 크게 높아져
- 전체 부문중 상품무역섬유자동차 분야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
- 한·미 FTA, '산업구조조정 가속화'와 '소비자 후생 증대'에 기여할 것
- '취약 산업 붕괴', '산업 및 소득 양극화 심화' 가능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
- '피해산업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'과 '산업 구조조정'에 보완대책 강화해야 등

3. 조사 결과 요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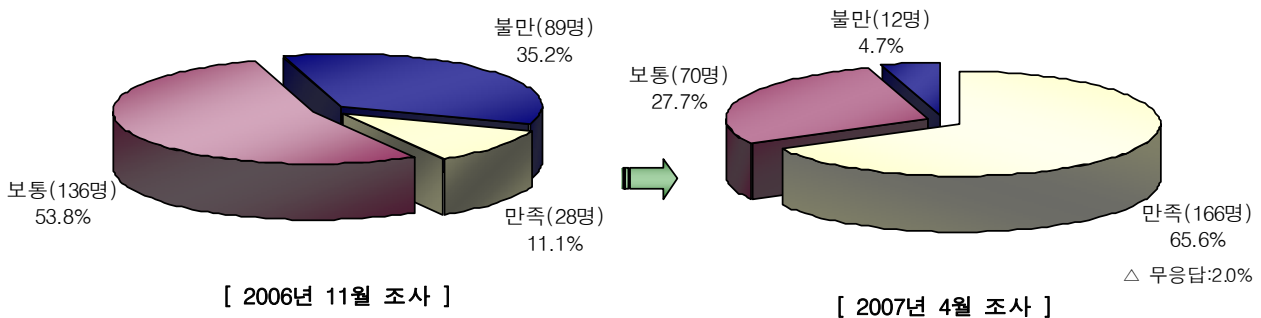
1) 한·미 FTA 협상 타결에 대한 종합적 평가

□ 경제전문가 65.6%, 한·미 FTA 협상타결 결과에 만족 의견 나타내

- 4차 협상 직후(2006. 11.) 실시한 1차 조사의 경우 경제전문가들은 4차 협상까지 협상성과에 대해 만족(11.1%), 보통(53.8%), 불만(35.2%) 등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았지만, 최종 협상타결 이후 2차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65.6%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

- 협상타결 이후 조사(2차)의 경우 만족도(5점 척도) 평균도 3.65로, 4차 협상 직후 실시된 1차 조사(2.73)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(T(247)=-18.679, p=0.000)

[한·미 FTA 협상 성과에 대한 만족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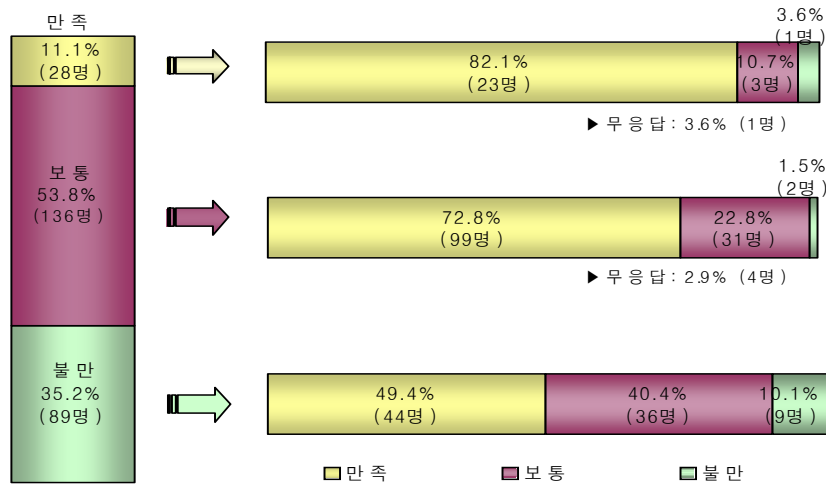


□ 4차 협상 직후 조사시(1차 조사) '보통' 및 '불만'이라고 응답했던 경제전문가의 63.6%가 2차 조사(최종 타결 후)에서는 '만족'으로 돌아서

- 4차 협상까지의 성과에 대해 '보통'과 '불만'의 의견을 가지고 있던 경제전문가 225명 중 63.6%인 143명(보통→만족: 99명, 불만→만족: 44명)이 최종 협상타결 결과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. 반면, 4차 협상까지의 협상 성과에 대해 '보통'과 '만족'이라고 응답한 전문가가 '불만'으로 하향 평가한 경우는 3명(1.2%)에 불과해

- 또한 4차 협상까지 성과에 대해 불만을 나타낸 응답자의 36명이 보통으로 바뀌는 등 응답자의 70.8%가 협상과정보다 최종 협상타결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

[한·미 FTA 협상에 대한 만족도 변화 추이]



[2006년 11월 조사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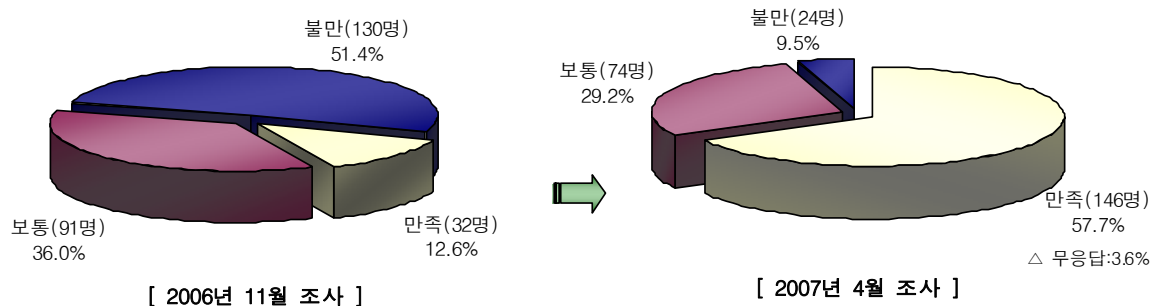
[2007년 4월 조사]

□ 정부 협상력에 대한 만족도 역시 크게 높아져

○ 1차 조사시(4차 협상 직후) 정부의 협상력에 대해서 경제전문가(253명)의 12.6%(불만: 51.4%)만이 만족한다고 평가했던 반면, 2차 조사(협상타결 후)에서는 정부의 협상력에 대해 57.7%가 만족한다고 응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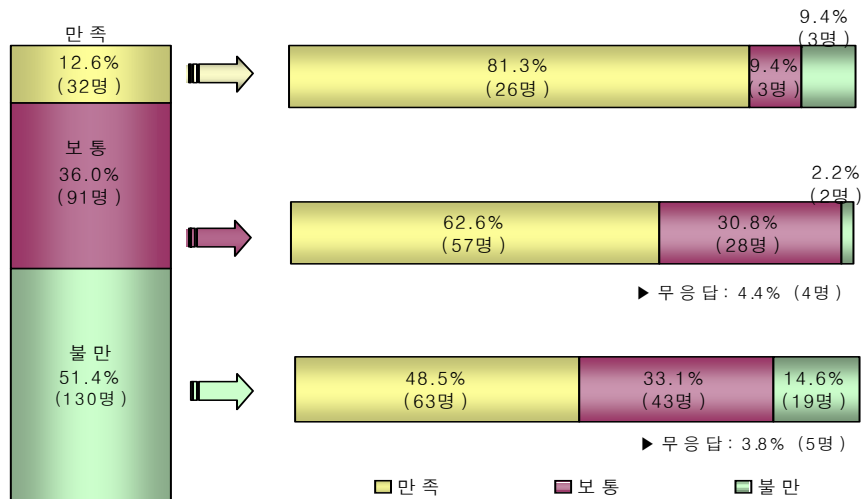
- 정부 협상력에 대한 만족도 평균(3.53)도 1차 조사시(2.55)보다 훨씬 높아져 (T(243)=-15.964, p=0.000)

[한·미 FTA에 대한 정부 협상력 만족도]



○ 특히 1차 조사시(4차 협상 직후) 정부 협상력에 대해 '보통' 또는 '불만'이라고 평가한 221명 중 53.3%(120명)가 2차 조사(타결 후)에서는 정부의 협상력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(보통→만족: 57명, 불만→만족: 63명)

[한·미 FTA에 대한 정부 협상력 만족도 변화 추이]



[2006년 11월 조사]

[2007년 4월 조사]

□ 한·미 FTA 협상을 목표 시한 내에 타결한 것은 바람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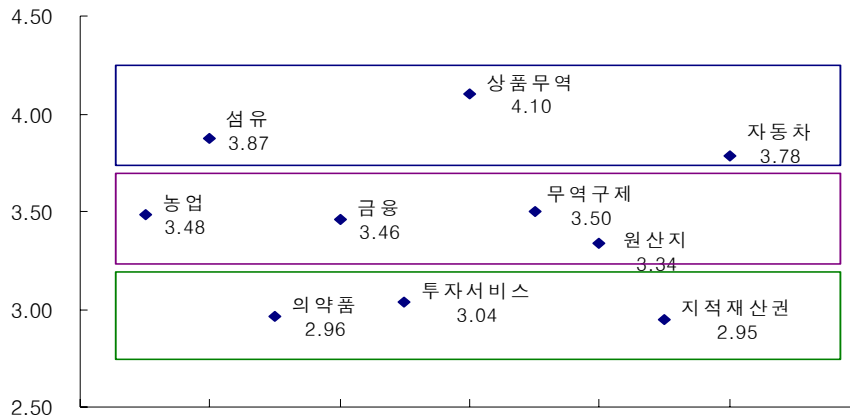
- 4차 협상 직후(1차 조사시)에는 ‘만족할 만한 성과를 위해서는 목표시한을 꼭 지킬 필요 없다’는 의견이 88.5%로 대다수를 차지했지만, 막대한 한·미 FTA 타결이 목표시한 내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경제전문가의 79.8%가 긍정적으로 평가
- 특히 4차 협상 직후(1차 조사시)에는 (정부가 정해놓은) ‘시한을 꼭 지킬 필요가 없다’는 의견을 보였던 경제전문가(224명) 중 78.1%(175명)가 시한내에 한·미 FTA를 타결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협상 결과에 대한 높은 만족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여져

2) 한·미 FTA 협상타결에 대한 분야별 평가

□ 상품무역·섬유·자동차 분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

- 경제전문가들은 분야별 협상타결 내용에 대해서 상품무역·섬유·자동차 분야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었으며, 농업·금융·무역구제·원산지 분야에 있어서도 대체로 만족을, 의약품·투자서비스·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이라고 평가

[한·미 FTA 협상타결에 대한 분야별 평가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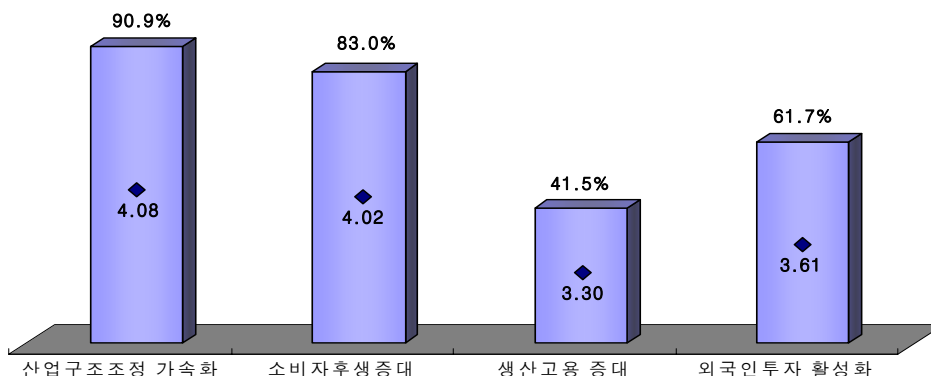


3) 한미 FTA 기대 효과 및 향후 대책

□ 한미 FTA, '산업구조조정 가속화'와 '소비자 후생 증대'에 기여할 것

- 경제전문가들은 한·미 FTA 타결로 '경쟁압력을 통한 산업구조조정 가속화(90.9%)', '관세철폐 등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'(83.0%), '외국인투자 활성화'(61.7%) 등의 긍정적 경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
- 반면, '생산 및 고용의 증대' 효과에 대해서는 '동의한다'는 의견(41.5%)이 상대적으로 적어
- 긍정적 효과의 크기를 5점 척도를 이용해 비교·분석한 결과에서도, 한·미 FTA는 '경쟁압력을 통한 산업구조조정 가속화'(4.08)와 '관세철폐 등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대'(4.02) 부문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반면, '생산 및 고용의 증대'(3.30) 효과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게 평가

[한·미 FTA 기대 효과에 대한 동의 정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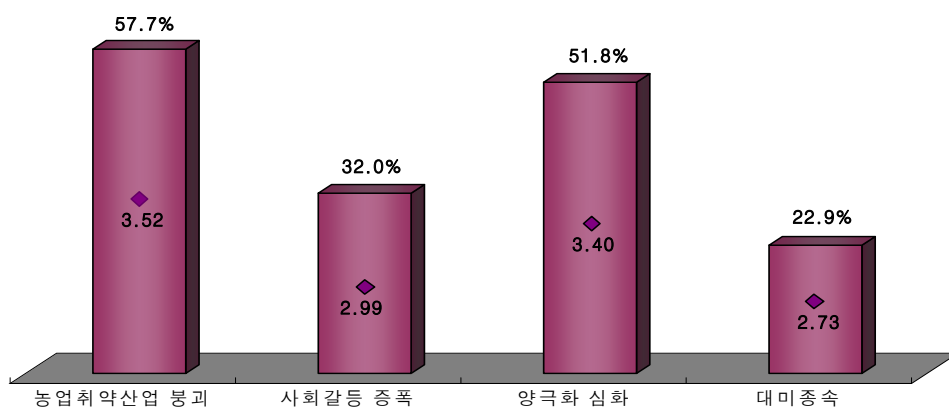


□ '취약 산업 붕괴', '산업 및 소득 양극화 심화' 가능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

○ 한·미 FTA 타결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효과 가운데 '농업 등 취약 산업 붕괴 가능성'(57.7%), '산업 및 소득 양극화'(51.8%) 문제에 대해 그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 반면, '사회갈등 증폭으로 인한 사회통합력 약화'(32.0%)와 '한국경제의 미국 종속 가능성'(22.9%)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

- 예상되는 한·미 FTA의 부정적 효과의 크기를 5점 척도를 이용해 비교·분석한 결과, '농업 등 취약산업 붕괴 가능성'(3.52), '산업 및 소득 양극화'(3.40)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려를 나타내었지만, '사회통합력 약화'(2.99)와 '미국에의 종속 가능성'(2.73)에 있어서는 그다지 우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

[한·미 FTA 부정적 효과에 대한 동의 정도]



□ '피해산업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'과 '산업 구조조정'에 역점 두어야

○ 협상타결 이후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로, '피해 산업 및 계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'(38.3%), '산업 및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'(31.2%)를 가장 많이 지적

□ 법률·교육 등 서비스 분야 개방 미흡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속도 늦출 수도

○ '법률·교육 등 서비스 분야의 개방 미흡으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속도가 늦어지게 되었다'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경제전문가의 64.8%가 동의해

□ 미국 다음으로 FTA 추진할 국가는 중국, EU

- 한·미 FTA가 타결된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향후 우선적으로 FTA 체결을 추진할 국가로 중국이 41.9%로 가장 많이 꼽혀. 다음으로는 EU(34.4%), 일본(11.5%) 순으로 나타나

4. 시사점

□ 한·미 FTA는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

- 상당수 경제전문가들이 한·미 FTA로 일부 취약 산업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협상 결과에 만족하는 것은, 한·미 FTA가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줘

□ 취약 산업에 대한 대책은 '구제'가 아닌 '생존'의 문제로 접근해야

- 경제전문가들이 피해 산업 및 계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대비책을 가장 중시하고 있음은, 농업 등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대비책을 단순한 '구제'가 아닌 '생존'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함을 시사

□ 철저한 준비만이 한·미 FTA의 果實을 키울 수 있어

- 경제전문가들은 향후 대책과 관련하여 피해 산업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도, 국내 산업 및 기업의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강조하였음. 이는 경쟁격화에 대한 대비를 촉구한 것으로, 우리의 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선결되지 않으면 한·미 FTA의 果實이 크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